논어 7편 술이 25장 · 원문·풀이

子曰：「聖人，吾不得而見之矣！得見君子者，斯可矣。」子曰：「善人，吾不得而見之矣！得見有恆者，斯可矣。亡而爲有，虛而爲盈，約而爲泰，難乎有恆矣！」

독음 · 자왈 성인 오부득이견지의 득견군자자 사가의 자왈 선인 오부득이견지의 득견유항자 사가의 무이위유 허이위영 약이위태 난호유항의

쉬운 풀이(요약) · 성인이나 선인을 만나기 어렵더라도 한결같은 사람을 만나면 좋다.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부족하면서 풍족한 척하면 한결같기 어렵다.

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글자 뜻과 음(대표 훈음 ·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

子 아들 자 / 曰 가로 왈 / 聖 성인 성 성 / 人 사람 인

吾 자기 오 오 / 不 아닐 불 / 得 얻을 득 득 / 而 말이을 이

見 볼 견 견 / 之 갈 지 / 矣 어조사 의 / 君 임금 군

者 놈 자 / 斯 이 사 사 / 可 옳을 가 가 / 善 착할 선 선

有 있을 유 / 恆 恒의 本字 항 / 亡 망할 망 망 / 爲 할 위

虛 빌 허 허 / 盈 가득할 영 영 / 約 대략 약 약 / 泰 클 태 태

難 어려울 난 난 / 乎 어조사 호

저본: 위키문헌 論語 ·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